



박병춘 전주교대총장, 발전기금 5000만원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걸음으로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박 총장은 4일 서현석 기획처장을 찾아 대학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총장 재임 기간인 4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총장은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서 예산 감축 등 많은 애를 쓰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과 교수들의 연구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총장은 "오랜 시간 대학을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해 왔고, 그 토대 위에 지금의 전주교대가 있게 된 것"이라며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대학의 선한 영향력에 공감해 주고 기부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현석 기획처장은 "총장님의 대학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뜻깊은 행보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현재 장학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기부 릴레이 등 각종 모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춘 총장은 오는 6일 15시 학내 화학당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선배 창업가 발전기금 창업 릴레이 기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4일 '창업 릴레이 기부'를 통해 발전기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부자는 전주대 선배 창업가 리더 최희호 대표(시각디자인 전공 04학번), 이지형 대표(기계자동차공학과 08학번), 트레저박스 이진성, 이지형 대표(스마트미디어학과 13학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선배 창업가 2명(김우찬 황관별 대표)의 기부에 이어 후배 창업가들이 지속해서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업 릴레이 기부'에 동참했다. 박진배 총장은 "3월에 이어 졸업생 선배들이 미래의 창업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오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낀다"며 "후배와 학교를 위한 선배들의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교내 청년창업 활성화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희호 대표는 "모교에서 창업을 시작하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대학과 창업가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건강한 창업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선배 창업가들이 뜻을 모아 '창업 릴레이 기부'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 선배 창업가들은 창업지원단이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와 같은 창업지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됐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드림업 서포터즈 3기 발대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취업지원실은 4일 오후 3시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3기 비대면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호원대는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교내 게시판 홍보를 통해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20여 명의 신청자들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항공관광학과 외 6개 학부(과) 11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호원드림업서포터즈는 1년 동안 취업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학생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친화적인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윤산=남원봉 기자

농협은행 정읍지원지점 개점

안정적인 공탁금 보관 · 관리은행 업무 개시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전주지방별 원 정읍지원의 안정적 공탁금 보관 및 관리를 위해 4일 정읍지원지점을 개점하고 업무에 돌입했다. 농협은 작년도 공개경쟁을 통해 도내 총 4개 법원의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지정됐으며, 정읍지원 지점은 4월부터 2026년까지 공탁금 보관 업무를 전담한다. 약 340억 원대의 공탁금 보관·관리 업무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농협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탁금 관리와 지역민



차별 금융실천에 앞장서겠다"며 "법원·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대표은행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아이티센그룹 인력양성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티센그룹(회장 강진모)이 융합인재 양성과 기업 및 학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4일 김동원 총장 등 보직자들과 아이티센그룹 CEO 박경곤 전무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아이티센그룹은 상용정보통신을 중심으로 공공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컴퓨팅정보통신과 금융 IT 분야 전문기업인 콤텍시스랩, 경영관리 솔루션 국내 1위인 굿센, 그리고 한국 금거래소 등이 연합한 기업그룹이다. 지난해 계열사들의 높은 성장으로 3조2,800억여 원의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최고의 IT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최신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전문 및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공동연구, 현장실습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및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공동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박경곤 전무는 "전북대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업무 협조를 넘어 양 기관의 전문성이 농축된 기술 협업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는 IT 서비스 시장과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15기 수료식서 김민호 단장 장관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김민호 단장이 지역 수출업무 지원과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5기 GTEP 수료식에서 전북대 GTEP사업단은 박진식 학생무역학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박혜분 학생(영어중문학과)이 한국무역협회회장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이날 김성희(무역학과), 신민경(무역학과), 박진식(무역학과), 박현우(스페인중문미학과), 이재린(무역학과), 조소현(무역학과), 한용수(무역학과) 학생 7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명의로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올해 제 15기 35명 전원이 수료하며 수료율 100%를 달성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청년 무



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청년무역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과 윤 당선인과 환담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 아름다운 꽃길 조성

전주시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단장 임현)은 봄맞이 쾌적한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나섰다. 마을계획추진단은 4일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주민 등과 함께 주민센터 앞 화분에 프리즐랜지, 프렌치라벤더 등 초화류를 식재했다. 임현 단장은 "봄에 어울리는 예쁜 꽃들로 주민센터 일대를 새롭게 단장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생기 넘치는 인후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꽃 식재에 함께한 강동화 의장은 "주민센터가 봄 향기를 물씬 풍기며 생기가 느껴져 기분이 좋다"며 "활력있게 펼쳐지는 봄의 기운이 인후2동 주민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동 각시미용실, 소외계층에 영양꾸러미 전달

전주시 효자동 해바라기봉사단과 각시미용실(대표 김미선)은 4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영양 꾸러미(과일, 찹쌀, 김) 30세트를 기탁했다. 각시미용실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주민센터에 기부해왔으며, 올해에도 선물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기부 참여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미선 대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효자동 허소영 동장은 "꾸준히 이웃나눔을 실천하는 김미선 대표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효자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박상문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6월 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삼천 1,2,3동(사선거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박상문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 민생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경험 연구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경제 재건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업자 지원 및 삼천천 생태공원 조성, 모악산 등산로 진입로 개선, 삼천동 막걸리 거리 활성화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현안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박 예비후보는 "주민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언제나 현안을 챙김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삼천천 시민이 주인인 전주시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전북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치권과 지방행정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달 출범한 '전북도민대동포럼'의 김도영 의장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안호영 전북도지사 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우병기 전주시장 후보 등도 참석하였으며, 은화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경제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상문 예비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밀키트 1000세트 기탁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 황은경)은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밀키트 1,000세트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봉업 전도행정부지사, 황은경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 물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은경 대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유호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펼쳐

태권도진흥재단(오승환 이사장, 이하 재단)은 4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이종갑 사무총장, 태권도원운영관리 주식회사(이하 '지회사') 서필환 대표이사 등이 참가해 봄철 산발 및 화재 예방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재단과 지회사는 매일 4일과 14일, 2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재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재단 대응요령 강화, 안전점검의 날 홍보 활동 등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부남제일교회 교인들 산불피해 성금 기탁

무주군은 지난 1일 부남제일교회에서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7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이한열 목사는 "전례 없는 산불로 막대한 산림 훼손 피해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가슴 아픈 재해가 발생했다"라며 "그 지역에 닥친 고통과 참담함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우들이 함께 정성을 모았"다고 전했다. 무주군 부남제일교회는 40여명이 출석하고 있는 작은 교회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교인들이 모금을 통해 조성했다. /무주=전문선 기자